

상  
처  
받  
은  
용

나  
비  
가  
되  
어  
덕  
항  
이  
며  
가  
장  
비  
방  
이  
며  
가  
장  
비  
방  
이  
며  
가  
장  
비  
방  
이  
며

‘한 국이 배출한 가장 위대한 작곡가’, ‘20세기 가장 중요한 작곡가의 한 사람’, ‘현존하는 현대 음악의 5대 거장’. 윤이상을 수식하는 말들은 이처럼 거창하다. 미국 뉴욕 브루클린 음악원에서는 최근 바하, 헨델, 모차르트 등 역사상 최고의 음

악가 44명을 꼽으면서 윤이상을 그 반열에 나란히 올려놓기도 했다.

음악가들은 그를 동양의 정신을 독특한 선율로 표현하여 한계에 다다른 서양현대음악을 구원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음악을 통

해 분단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처한 상황을 일깨워주고, 분단의 갈등을 음악으로 화해시키고자 했던 민족음악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러나 100여 명이 넘는 유럽 내 유학생들을 강제로 납치해 간첩으로 둔갑시켰던 동백림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윤이상은 2년의 감옥살이 이후 민주화와 통일이란 과제에 일생을 바치는 동안 다시는 조국의 반쪽,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에 들어올 수 없었던 비극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윤이상은 고향인 통영에서 퍼온 흙한 줌과 함께 여기 잠들어 있다”

1995년 11월 8일 향년 78세로 베를린의 바라크 병원에서 타계한 윤이상의 묘비글이다. 한반도의 남쪽 끝자락, 한국의 나폴리로 불리는 미항 통영이 그의 고향이다. 지병 악화로 생의 마지막을 기다리면서 죽기 전에 고향 땅을 한번 밟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유언처럼 말했던 윤이상. 말년에 이르러 통영 앞바다를 찍은 큰 사진을 한쪽 벽에 붙여 놓고 살았던 그는 일본을 방문했을 때 통영 바다를 보겠다며 공해상까지 배를 타고 와서는 먼발치에서 고향 바다의 흔적을 찾아보기도 했었다.

“나는 통영에서 자랐고, 통영에서 그 귀중한 정신적인, 정서적인 모든 요소를 내 몸에 지니고, 그것을 나의 정신과 예술적 기량에 표현해서 나의 평생 작품을 써 왔습니다.”

한 줌 흙으로 통영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며 머나먼 독일 땅에 잠든 ‘상처받은 용’의 꿈은 이제 세계적인 음악가들을 자신의 땅으로 불러들이며 새로운 환생을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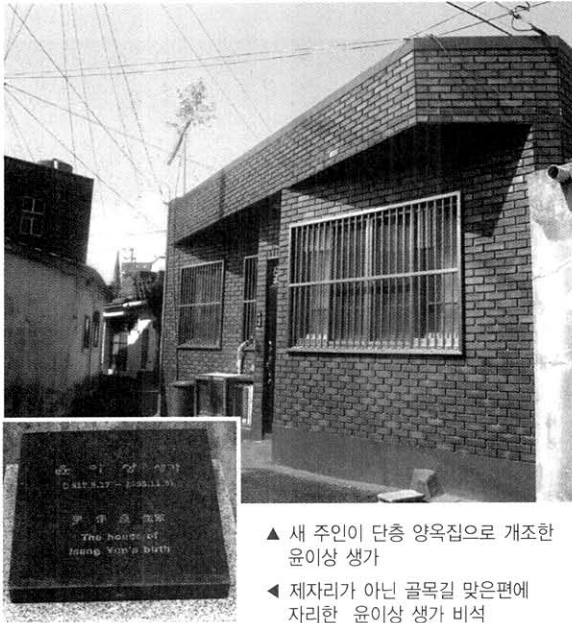
윤이상의 고향인 통영시가 고장이 배출한 세계적인 작곡가를 기리기 위해 만든 국제음악제가 <통영국제음악제>이다. 올해로 세 돌을 맞이하는



통영국제음악제는 2000년 ‘통영현대음악제’라는 이름으로 첫 발을 내딛어 2002년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 설립과 함께 국제음악제로 성장하였다. 매년 3월에 10일 정도로 열던 것을 이번 2004 시즌부터는 연간 시즌화 행사로 바꾸어, 10월 국제콩쿠르와 폐막 공연에 이르기까지 몇 차례 주요한 행사를 진행한다.

### 통영국제음악제

올해의 주제는 ‘eSPACE(공간)’.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윤이상의 작품명에서 따왔다. eSPACE는 윤이상의 첼로곡 작품명이다. 이번 음악제의 개막축제에는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전세계 12개국 23개팀 1천 17명의 연주자 및 음악가들이 참가해 모두 20회의 공식 공연을 갖는다. 개막일인 22일 오후 7시 30분 통영시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개막 연주회에는 국립오페라단과 코리안 심포니가 협연하는 윤이상의 오페라 ‘영혼의 사랑(Geisterliebe)’이 공연되며 거의 매일 윤이상의 작품이 한 곡 정도씩 소개된다. 개막 공연작인 ‘영혼의 사랑’은 71년 완성 직후 독일 키엘



▲ 새 주인이 단층 양옥집으로 개조한 윤이상 생가  
 ◀ 제자리가 아닌 골목길 맞은편에 자리한 윤이상 생가 비석

(Kiel)시에서 초연된 이래 30여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서는 작품이기도 하다.

개막 행사 동안 통영시민문화회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공식 공연과 더불어 페스티벌하우스(옛 통영군청)와 중앙동 문화마당에서는 참가를 원하는 팀의 신청을 받아 자유롭게 진행되는 프린지(Fringe)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올해 프린지 부문에는 전국의 아마추어 음악가와 학교 악단 등 모두 50개 단체가 참가해 윤이상 가곡 합창, 재즈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다.

### 통영 가는 길

분단의 질곡이 아무리 깊고 험하다한들 일상은 아닐 것이다. 일상사 대부분의 질곡은 돈 아니면 사람 탓이다. 윤이상이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고향 땅 통영에 그가 죽어서조차 올 수 없었던 것 또한 사람 때문이 아니던가. 누구나 그렇듯 사람으로 인한 갈등에 허덕이는 일상을 벗어나고픈 소망은 상생의 해원곳판이 벌어지는 통영으로 치닫게 했다.

통영으로 가는 길은 전보다 훨씬 가까워졌다. 대전에서 진주를 잇는 고속도로가 뚫린 탓이다. 이른 아침 쪽빛 바다를 보고픈 마음에 심야버스를 탔다. 12시에 출발한 버스는 5시간 뒤 도착 예정. 한숨 붙이고 눈 비빈 뒤, 바다 쪽으로 머리 틀고 뜨는 해를 맞이하기에 적당한 시간이다. 하지만 꿈은 여지없이 깨졌다.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예정을 1시간 가량 앞당겨 도착한 버스는 잠자리를 뒤흔들고 나비를 쫓는 꿈은커녕 인간에 대한 회의를 떠올리게 한다. 캄캄한 새벽 떨어지는 빗방울은 해 뜨는 통영 앞바다의 꿈마저 앗아가 버리고, 비를 피해 터미널 옆 골목길로 숨어들 때부터 이미 해원곳판에 낄 수 없음을 예감해야 했다.

비 그친 하늘 밑, 통영 시가를 거닐며 윤이상의 생가를 찾아 나섰다. 4년 전 윤이상 거리로 명명된 근처까지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행사 안내 지도에 나와 있는 표시는 그 즈음 어디라는 것만을 알 수 있을뿐 마지막 골목길 입구를 지나서부터는 영판 오리무중이다. 한참을 해매다 인근에 있는 페스티벌하우스를 찾아갔다. 음악제 사무국이 있는 이곳은 프린지 행사의 무대이기도 하고 윤이상과 음악제를 주제로 한 전시회 등 몇 가지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안내를 맡고 있는 몇몇 자원봉사자들에게 생가로 가는 길을 물었지만, 이미 지나왔던 길 이상의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관할 동사무소를 찾아 두어 번을 물어본 끝에야 생가터를 찾았다.

10년 전 새 주인이 단층 양옥집으로 개조한 윤이상의 생가는 제자리도 아닌 골목길 맞은편의 작은 표지석으로만 그 흔적을 알아 볼 수 있을 뿐……. 생전에 그렇게도 보고 싶어했던 고향집은 이미 윤이상의 꿈과는 다른 곳에 있었다. 그나마 통영시가 80억 원이란 거금을 들여 생가를 복원하고 인근을 공원으로 꾸미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위안을 삼는다. 기왕이면 집터를 살리는 정성으로 윤이상의 혼을 맞아들이는 명예회복에도 정성을 쏟았으면 하지만 아직 국가 차원에서는 범죄자로 낙인



찍혀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이 정도나마 챙기고 나서는 것이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하다.

### 멋진 음악당 그리고 거창한 위락단지

음악제의 주 무대인 통영시민문화회관은 흔히 그렇듯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위해 만들어진 다목적 공간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세종문화회관도 전문 음악홀로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얼마 전 대대적인 보수를 벌였으니, 지방 소도시의 문화회관이 어떤 형편이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음악제를 주관하는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제(이사장 박성용 금호그룹 명예회장)은 '통영음악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재단측이 발표한 계획에 따르면 1천 500석 규모의 음악당은 세계 건축사·음악사에 길이 남을 아름다운 건축물이 될 것이라 한다. 여기에는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된 '윤이상 홀'과 500석 규모의 리사이틀 홀, 그 외 각종 세미나실 등이 들어서게 된다. 재단측은 이에 덧붙여 통영에 바이올린 등 각종 악기 제작과 음향기술 등을 가르치는 특수

목적고등학교를 만드는 등 통영을 클래식 음악 전문도시로 키우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올해 공식기자회견에서 드러난 모습으로 보자면 선뜻 동의하기 어려워진다. 통영시가 세운 계획에 따르면 2,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음악당을 짓고, 여기에 40층에 달하는 콘도와 특급호텔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 음악당이 아닌 종합 위락단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거대한 시설을 계획하고 이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 많은 고민의 과정이 있었겠지만, 거작주의와 물량 위주의 발상으로 비치는 것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윤이상의 흔이 있는 음악제

클래식 음악을 소재로 많은 이들이 함께 즐기는 축제를 조직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고향에서 배출한 음악가라는 정서적 공감이 있다 해도 클래식, 특히 현대음악의 거장인 윤이상의 음악을 평범한 사람들이 즐기는 것은 어렵다. 세계적으





개막 연주회 때 공연된 윤이상의 오페라 '영혼의 사랑'

로 유명한 음악제로 발전해 간다는 통영국제음악제의 목표는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윤이상의 유명세에 기대된 세계화는 가능성의 한계를 좁힐 뿐이다. 세계화에 앞서 충분한 전국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음악을 찾기보다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 잡은 관객이 없어도 개막공연이 성공할 수 있어야 하며, 30년만의 초연이라는 개막 작품의 의의만으로도 전국적인 호응이 있어야 음악제라는 본래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날 것이다.

덧붙이자면 윤이상 스스로는 자신의 고향에서 그를 음악으로만 한정시켜 받아들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미망인 이수자 여사는 “민족의 문화 자산인 윤이상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열면서 남북 사이의 긴장이 눈 녹듯이 녹아내

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비록 북한이 윤이상을 먼저 받아들였다 해도, 그의 행동이 사상적으로 거슬린다 해도 윤이상은 세계적 거장이며 또한 민족의 문화자산이다. 통영의 윤이상이 아니라 한국민 모두가 윤이상을 받아들일 때, 관용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으로 그의 음악을 대할 때 '상처 받은 용'은 한 마리 나비가 되어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조국의 품, 고향 앞 바다로 날아들게 될 것이다. 윤이상을 기리고자 태동한 통영국제음악제가 윤이상의 꿈을 담지 못한다면 그가 작곡한 수많은 곡들이 통영바다 위를 물결친다 해도 그의 혼이 함께 있지는 않을 것이다.

〈김종철〉

## 윤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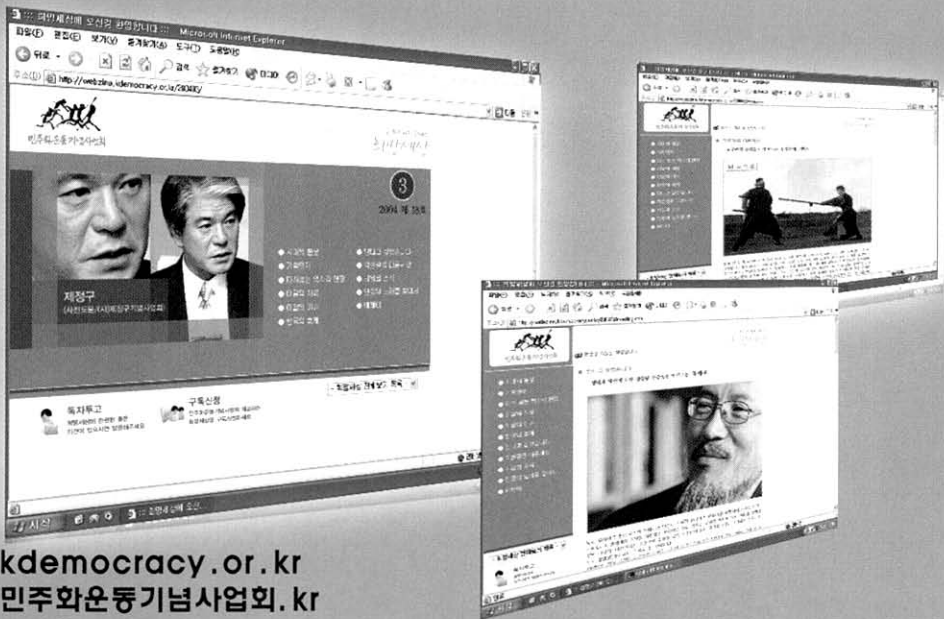
경남 산청(山淸) 출생. 통영에서 서당과 보통학교 과정을 수료하고 1935년 오사카(大阪)음악학교에 입학, 1937년 귀국하였다. 통영여고 교사를 역임하고 56년 프랑스로 가 파리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하였다. 59년 독일에서 열린 다름슈타트음악제 때 쇤베르크의 12음계 기법에 한국의 정악(正樂) 색채를 담은 《7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을 발표, 유럽 음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1967년 동베를린공작단사건에 연루되어 서울로 강제 소환, 2년 간의 옥고를 치뤄야만 했으나, 세계 음악계의 구명운동에 힘입어 풀려났다.

71년 독일에 귀화하고, 72년 뮌헨올림픽 개막 축하 오페라에서의 《심청》을 비롯, 옥중에서 작곡한 《나비의 꿈》(68),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광주여 영원하라》(81), 북한국립교향악단이 초연한 칸타타 《나의 땅 나의 민족이여》(87),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분신한 사람들의 넋을 추모한 《화염에 휩싸인 천사와 에필로그》(94) 등 150여 편의 작품을 남겼다.

민주화운동

희망으로 되살아나는 소중한 꿈입니다

# 『희망세상』을 웹으로 볼 수 있습니다.



[www.kdemocracy.or.kr](http://www.kdemocracy.or.kr)  
[www.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kr](http://www.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kr)  
[www.민주화.kr](http://www.민주화.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에 오셔서 회원 가입(무료)을  
하시면 『희망세상』을 웹진으로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 문의전화 : 02-3709-7500 • 이메일 : [webmaster@kdemo.or.kr](mailto:webmaster@kdemo.or.kr)